NEW CITY GOOD NEWS LETTER

아이에게는 어른이 필요하다

나이의 벽을 허물고 함께 자라가는 영적 가족, 뉴시티교회

아이에게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또래를 찾는 데 익숙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 같은 기수의 사람만 찾는 것은 얼마나 편협한 일인지요. 전통적인 가족 속에서 형제자매란 본래 나이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살, 다섯 살, 열 살, 때로는 스무 살 차이 나는 형제자매가 한집에 살았고, 삼촌과 이모, 고모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두 명의 자녀를 둔 오늘날의 핵가족 시대에,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이며 놀이이고, 교류입니다. 이는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에게 더욱 중요한 만남은 또래가 아니라, 훨씬 젊은 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눈높이를 맞추며 배우는 자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연령은 소통의 문이 아니라 단절의 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취업해 돈을 벌어야 비로소 어른 대접을 하는 성과 지상주의가 우리 아이들을 "아직 준비가 덜 된 존재"로 규정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역시 이러한 문화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저·중·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재수생부까지 잘게 쪼개고, 성인도 연령대별로 분리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재미 위주의 피상적 교육, 위아래로 본받을 모델이 없어 공동체에 뿌리내리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학교와 취업의 길목마다 교회를 떠나버린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토록 많은 재정과 인력, 열정을 쏟았음에도 지난 삼사십 년간 우리는 10대와 20대, 30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했고, 야곱이 벧엘로 올라갈 때는 온 자녀가 연령을 넘어 동행했습니다. 말을 못 하는 젖먹이의 찬양도 하나님은 온전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자리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어린 소년이 있었고, 초대교회의 다락방과 가정에는 청년과 장로가 함께 모였습니다. (2면으로 계속됨)

누구든,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환영합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이들만 따로 모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 역시 어른과 함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동등한 가치와 자격을 가진 참된 제자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노인 사역을 따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는 마흔 살 차이가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성경 속 가장 깊은 친교는 언제나 세대를 뛰어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뉴시티교회는 통합예배, 통합소그룹, 통합교육, 통합섬김을 성경적 모델로 바라봅니다. 예배의 앞부분을 온 성도가 함께 예전과 찬양으로 드리고, 설교 본문도 아이와 어른이 동일하게 다룹니다. 본문이 같으니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받은 은혜와 궁금한 점을 나누는 훌륭한 대화의 촉매제가 됩니다.

리딩지저스 역시 온 세대가 같은 본문, 같은 진도로 읽어나갑니다. 앞으로는 중고등학생이 한 달에 한 번 동생들의 일일 교사가 되고, 어른과 청소년이 마니또 짝꿍이 되어 대화하는 자리도 시작하려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연령의 벽을 넘어 함께 축구를 하고, 보드게임을 하고, 대화하며 청소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돌보고, 30대와 50대가 섞여 소그룹을 하며, 70대와 40대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종과 세대, 남녀와 출신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나이라는 편협한 벽을 허물고, 주님 앞에서 함께 성장하며 사랑을 배우고 친구가 되는 곳입니다.

AI가 대세가 되는 시대에 이러한 삶의 연습은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아이와 어른, 노인과 청년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는 일입니다. 이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세대 갈등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나이별로 쪼개고 갈라지는 대신, 나이를 뛰어넘어 함께 뭉칠 때 우리는 세상이 애타게 찾는 고귀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벽을 허물고 틈을 메우며, 관계를 세워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이에게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른에겐 아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오목사 드림

SUNDAY WORSHIP

주일 예배 순서

묵도와 부름		인도: 오종향 목사
사도신경		
찬 양	내맘의 눈을 여소서 주 여기 함께하시네 아무 것도 두려워말라	인도자+찬양팀
합심 기도		
성경 봉독	열왕기하 6:15 - 20	이세린/다함께 기립
설 교	눈을 열어 보게하소서	오종향 목사
결단의 침묵		
찬송과 기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헌 금		
안 내		
축 도		
점심 친교		
조모임		*방문자/새가족은 오종향 목사와 함께

예배가 처음이신가요?

- 순서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화면과 이 순서지를 따라 편안히 함께해 주세요.
- 헌금은 교인들의 감사 표현입니다. 처음 오신 분은 마음의 부담 없이 지나셔도 됩니다.
- 예배 후 점심을 함께 나눕니다. 꼭 함께 드시고 가세요.

SCRIPTURE OF THE DAY

오늘의 말씀

대표 낭독자: 이세린 (다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열왕기하 6:15 - 20 (우리말성경)

열왕기하 6장
15.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 보니
말과 전차를 이끌고 온 큰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물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17.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 말과 불 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8.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 내려올 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해 주소서."
그러자 엘리사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19.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길도 아니고 성도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다."
그러고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20.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이르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고 그리하여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같이: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복음 한 스푼

-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시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저마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 예수님은 그 벌어진 틈을 십자가로 친히 메우셨습니다.
- 누구든지 그분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SERMON OUTLINE

설교 아웃라인 〈눈을 열어 보게하소서〉

티비는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선명하게, 더 넓게 보입니다.
신앙은 (①____)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더 (②____) 보는 것입니다.

1.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세균도, 원자도 안 보입니다. 사랑도, 진리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③____)가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2. 두려워 떠는 사환 (15절)

적군이 성을 둘러쌌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사환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④____)은 몰랐습니다. (딤후 3:5)
죽음 앞에서는 나의 착함도 성실함도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3. 첫 번째 기도 – 사환의 눈이 열리다 (16 - 17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⑤____)."
엘리사의 기도: "그의 눈을 열어서 (⑥____) 하옵소서."
눈이 열린 사환이 본 것 – 불병거는 심판이 아니라 (⑦____)하러 와 있었습니다!
불병거는 그날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날 보인 것입니다.

4. 두 번째 기도 – 원수의 눈이 열리다 (18 - 20절)

눈이 열린 적군을 기다린 것은 칼이 아니라 (⑧____)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아직 (⑨____)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롬 5:8)

5. 우리의 기도

믿음은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너희 (⑩____)의 눈을 밝히사" (엡 1:18)
오늘의 한 줄: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바꿔 주소서" 전에 – "(⑥____) 하소서." 걱정되는 일 하나를 놓고,
이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SMALL GROUP

소그룹 나눔 (예배 후 함께)

1 [5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 [5분] 본문에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17절, 20절). 각각 누구를 위한 기도였고, 눈이 열린 그들은 각각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두 장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3 [10분] 사환은 선지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던,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절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딤후 3:5)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신앙에서 "모양"만 남아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4 [10분] 설교에서 같은 불병거가 어떤 사람에게는 보호막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불칼(창 3:24)이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8 - 10을 함께 읽고, 원수였던 우리에게 불병거가 울타리가 된 근거를 나누어 봅시다.

5 [10분] 눈이 열린 사환은 두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 그리고 형언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구원. 이 둘 중 나에게 더 흐릿하게 보이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왜 그럴까요?

6 [15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크게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빼곡했구나 하고 뒤늦게 눈이 열렸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이미 와 있다"고 고백하고 싶은 영역은 무엇입니까?

7 [15분] 이번 주, 기도의 첫 문장을 바꿔 봅시다. 돌아가면서 기도제목을 나눕시다 "바꿔 주소서" 전에 "보게 하소서."

8 [10분] 에베소서 1:17 - 18을 함께 읽고,
서로의 "둘러싼 숫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이여, ○○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고, 기도로 모임을 마무리해주세요.
- 모든 질문이나 순서를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 어떤 질문에 집중할지 함께 상의하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설교 아웃라인 빈칸 정답 ① 눈 ② 크게 ③ 전부 ④ 능력 ⑤ 많으니라 ⑥ 보게 ⑦ 구원 ⑧ 잔치(잔칫상) ⑨ 죄인(원수) ⑩ 마음

SERVING TODAY

오늘의 섬김과 봉사

- **예배 안내**
  - 이번 주일: 배지은 유은희
  - 다음 주일: 박민수, 민경애
- **성경봉독**
  - 이번 주일: 이세린
  - 다음 주일: 이시원
- **청소정리**
  - 이번 주일: 들풀 조
    (이수민 윤재연 노영숙 유은희 송인성 김현지 김영혜 소혜진)
  - 다음 주일: 휴 조
    (김재강 은원철 박태원 이성은 조영준 이위직 허준)

MISSION

후원 선교사님 근황

-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 웹판에는 근황을 싣지 않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당신을 위한 기도

지금 아프거나, 지쳤거나, 낙심 중이신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 오늘 이 주보를 손에 든 한 사람, 그 마음의 무거움을 아시오니 친히 안아 주시고 쉼을 주소서."

뉴시티교회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NEWS & EVENTS

교회소식

주일 안내

-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예배 후 점심 함께하는 교제시간이 있습니다.
- 소그룹모임이 예배후에 있습니다.
- 오늘 점심 메뉴는 찐 옥수수, 구운 계란, 과일 샐러드, 김밥입니다.

7월의 말씀

- 7/26 주일: 펼쳐 놓은 편지 (기도로 위기를 돌파한 히스기야)
- 7/24 금요일: 박넝쿨 (미움의 문제에 직면한 요나)

뉴시티 이모저모

- 찬양 악보는 소량 배치합니다. 화면 가사를 보며
  가슴을 열고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 헌금 계좌: 우리은행 1005-003-606016 뉴시티교회

7-8월 일정

- 찬양팀 음향 조율: 7/19 주일 3시
- 쪽방촌 도시락 나눔: 7/25 토요일 12시 (남영동 소망을 찾는 이 교회)
- 초등부 여름 나들이: 7/28 화요일 (캐리비안)
- 유치부 물놀이: 8/1 토요일
- 다음세대를 위한 8월 기도회: 8/2 주일 10시
- 청소년부 수련회: 8/3~4 (월요일~화요일, 교회 및 양화진)
- 제직회 정기 모임: 8/30 주일 1:15

NEXT GENERATION

주일학교 안내

유치부

- 8월 1일(토) 여름 물놀이를 다녀옵니다.
- 최은총 전도사, 유은희 집사, 학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 유치부를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최전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유치부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15-12:00
-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다

초등부

- 7월 28일(화) 여름 나들이를 다녀옵니다.
  초등부 여름 나들이는 오종향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 초등부를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최전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주일 오전 10시, 〈예수마당〉
  : 자존감_폿대를향하여 (오연준 발표)

청소년부

- 8월 3일(월)~4일(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4일에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을 방문합니다.
- 청소년부를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최전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주일 오후 1시,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반〉
  : 11과_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역대상·하, 에스라)

PEOPLE OF NEW CITY

교회를 섬기는 분들
행복한 제직회 · 2026년 하반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분들입니다.
궁금한 것, 제안하고 싶은 것,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각 팀장에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2026년 제직 명단

제직의 임기는 1년입니다. 내년 제직은 연임과 신임으로 세워집니다.

- 권사: 김영혜, 옥진복, 정민재
- 집사: 강자은, 김성배, 김순영, 김재강, 김혜영, 노영숙, 문영식, 박태원, 배지은, 손이숙, 우문주, 원종욱, 유은희, 은원철, 이수민

함께 섬기는 봉사자

제직은 아니지만 귀한 몸과 시간으로 교회를 함께 세우는 분들입니다.

- 김화길 (청소년부 지원)
- 박민수, 윤재연 (예배 안내)
- 이성은 (찬양팀 찬양 인도)

섬김의 팀

- 환경개선팀 (팀장 강자은 · 김영혜, 우문주) 예배당과 교회 공간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내부 데코, 화분과 식물 돌봄 등
- 구제전도팀 (팀장 원종욱 · 김영혜, 손이숙, 옥진복, 정민재) 가을 새가족 초청집회를 준비하고, 연말마다 주민센터와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복음의 말씀과 선물을 전합니다.
- 새가족안내팀 (팀장 유은희 · 배지은, 이수민) 주일마다 예배당 입구에서 환영하고, 새가족이 오시면 자리와 식사를 함께하며 섬깁니다.

- 재정팀 (팀장 김재강 · 은원철)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분기, 연간마다 보고합니다.
- 찬양팀 (팀장 김성배 · 노영숙, 문영식, 은원철, 이성은)
  찬양, 음향, 방송 송출, 미디어를 맡습니다.
- 자비사역팀 (팀장 김혜영 · 김순영, 김현지, 박태원)
  유니시드(탈북자 지원, 도시락 나눔), 시선오브·꽃피는 봄날
  (자립준비청년), 쪽방촌(주거불안가정) 등 이웃을 찾아가 섬깁니다.
- 앞으로 세워질 팀: 중보기도팀, 독서클럽팀, 다음세대교육팀,
  소셜미디어팀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팀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함께 시작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예배 안내위원

- 첫째 주: 윤재연, 이수민
- 둘째 주: 옥진복, 손이숙
- 셋째 주: 배지은, 유은희
- 넷째 주: 박민수
- 다섯째 주: 지원 요망

주일학교 섬김

- 유은희 (유치부 교사)
- 김화길 (청소년부 지원)

소그룹 조장

- 김성배, 김순영, 김재강, 김현지, 손이숙, 우문주, 유은희, 이수민
  (김순영, 김현지, 유은희 조장은 새로운 조가 만들어질 때를 준비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 4:10)

FRIDAY WORSHIP

금요예배 순서

저녁 7:30

묵도와 부름		인도: 오종향 목사
사도신경		
찬　　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최은총 전도사
합심 기도		
성경 봉독	요나 4:9 - 11	다함께 기립
설　　교	하나님의 사랑 (4) 박넝쿨 (미움의 문제를 이기는 해법)	오종향 목사
찬양과 기도		
축　　도		
개인 기도 후 귀가		

뉴시티교회에 처음 오셨나요?

뉴시티교회는 나이의 벽을 허물고 온 세대가 함께 자라가는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분, 신앙을 그리워하는 분, 위로와 쉼이 필요한 분, 교회가 처음이거나 오랜만인 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기
주일 11:00 · 금요 19:30
3면에서 자세히

함께 나누기
예배 후 소그룹 나눔과 점심 친교
6면에서 자세히

함께 섬기기
마음이 움직이는 섬김의 팀에 참여
10면에서 자세히

궁금한 것은 예배당 입구의 새가족안내팀이나 오종향 목사에게 무엇이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주일예배 11:00, 금요예배 19:30 · 서울 서초구 명달로 46 서신상가 (2층 친교실, 3층 예배실)
헌금 계좌: 우리은행 1005-003-606016 뉴시티교회

오시는 길